

# 강진 안운마을 백운동원림의 승경과 수공간의 조영 특성

박율진\* · 김홍균\*\* · 노재현\*\*\* · 김화옥\* · 고여빈\*\*\*

\*전북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 \*\*벽성대학 조경과 ·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Water Space and Scenic Spot of Baegun-dong Wonlim in Gangjin Aaun Village

Park, Yool-Jin\* · Kim, Hong-Gyun\*\* · Rho, Jae-Hyun\*\*\* · Kim, Hwa-Ok\* · Goh, Yea-Bin\*\*\*

\*Dept. of Environmental Garden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Byuksung Colleg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is aiming to acquire data for enhancing genuineness of restoration through reviewing external and internal scenery of Baegun-dong Wonlim such as Baegun-dong 8 Objects of Scenery(pines, bamboos, chrysanthemum, orchid, maehwa blossom, magnolia, fiddle and crane) and 12 Scenic Spots and reviewing internal and external scenery of Baegun-dong Wonlim such as views and scenery for plantation. For Baegun-dong 8 Young which sang songs about scenic spots of Baegun-dong Wonlim it seemed that its head words were formed through borrowing rhyming words from caption of Baegun-dong Yuseogi(白雲洞幽棲記). Accordingly it seemed these scenery secured its status of Wonlim from the beginning. Particularly the words of fiddle and crane in 琴棋書畫(Geumgisuhha) implied that playing Komungo and brushwriting were firmly rooted as romantic pursuits of classical scholars of that time.

In consideration of distance upto Okpanbong which is one of 12 scenic spots of Baegun-dong radius of outer circumference is estimated to be around 1.6km. From Okpanbong, the epicenter, Sandagyeong, Baegokmae, Hongokpok and Pungdan etc. correspond to transitional space. And inner scenery was formed with hub of thatched cottages and bowers surrounded with chrysanthemums, poenies, rhododendron, *Phyllostachys bambusoides*, pines and upper and lower water paths. Thus it seemed there was scenic structure of centrifugal nature as well as of multiplicity. Forms of majority of water paths with residual structure found in the country have streamlined forms on the other hand Baegun-dong water paths have straight line which almost dominate inner gardens in terms of scale and forms thus revealing its extraordinary idea and design.

In order to promote genuine restoration of Baegun-dong Wonlim it will be necessary to have consideration from standpoint of managing perspective to assure presentation of gradual scenery with elements of scenic objects for outer view among 12 Scenic Spots.

*Key Words : Baegun-dong 8 Scenery, 12 Scenic Spots, Eternal and Internal Scenery, Curved Water Paths*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여러 시문과 옛 그림 속에 나타난 백운동8영과 12승경 등 백운동원림의 내경과 외경의 고찰을 통해 조망경관과 식재경관 등 백운동원림의 전통 조경적 특질을 검토함으로써 복원의 진정성 제고할 수 있는 자료를

\* Corresponding Author : Rho, Jae-Hyu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Wanju 565-701, Korea. Phone : +82-63-290-1494, E-mail : orchid@woosuk.ac.kr

도출하고자 하였다.

1. 백운동원림의 장소성은 백운사지(白雲寺址) 및 梁나라 도홍경(陶弘景)이 화양(華陽) 은거고사 그리고 원림입구의 白雲洞 각자에서 근원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 백운동8영은 백운동유서기(白雲洞幽棲記)의 표제어를 그대로 차운하고 있으며, 백운동8영의 요소인 소나무·매화·대나무·난·연꽃·국화 그리고 영산홍은 관상학적 측면은 물론 의미경관요소로 지속적으로 원림의 내경을 구성하였던 조경 식물로 보인다.

3. 백운동12승경으로 볼 때, 약 1.6km 권역의 원경인 옥판봉을 외경으로, 산다경, 백매오, 홍옥폭, 풍단 등은 전이공간으로 설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초당과 정자를 비롯하여 국화, 모란, 영산홍, 왕대, 소나무 그리고 연못 등을 내경의 경관요소로 구성함으로써 백운동원림은 별서를 중심으로 구심적이며 다층적 경관구조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두 개의 방지(方池)가 곡수거로 연결되는데 상지는 크기 3.5m×4.5m 크기이고, 하지 또한 장방형에 크기 3.6m×5.7m로 실측되고 있으며, 서측을 흐르는 계곡수를 끌어 원내로 유도한 유로(流路)는 90°의 직각 형태를 보이고, 원내에서 총 5번의 굴절(屈折)을 이루는 곡수로 구성되어 있다.

5. 현재 유구가 남아있는 국내 대부분의 곡수거(曲水渠) 형태는 유선형인데 반하여 백운동의 곡수거는 반듯한 직선으로, 내원(內園)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형태와 규모를 갖는 이채로운 발상과 디자인으로 주목된다.

백운동원림의 진정한 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옥판봉을 비롯한 12승경 중 외경의 경물요소에 대한 점진적인 경관연출을 도모하기 위한 조망·관리적 배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백운동 8영, 백운동 12승경, 외경 및 내경, 곡수거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백운동원림(白雲洞園林)은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월출산 옥판봉 자락에 위치한 17세기 말 조영된 전통 별서(別墅)이다. 월하리는 조선 초기 기록인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무위동(無爲洞)이라 하여 이웃인 월남동과 함께 영암의 월경처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원림의 조영자 이담로(李聃老, 1627~?)의 자는 연년(延年), 호는 백운동은(白雲洞隱)으로 장사랑(將士郎)을 지냈고, 사후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되었다. 젊어서부터 문학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절조를 숭상하여 세상에 뜻을 끊고, 백운동으로 들어와 금서(琴書)를 즐기며 만년을 보냈다. 입산조인 이담로가 만년에 둘째 손자 이언길(李彦吉, 1684~1767)과 함께 백운동에 은거한 이래 지금까지 11대에 걸쳐 이어져온 유서 깊은 원림으로 현재는 처사의 12대손인 이효천 씨가 거주하고 있다. 2004년 11월 1일 향토문화유산 제22호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2009년 착공된 복원사업으로 원림의 골격이 회복된 상태이다. 이담로의 생애에 대해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으나 그가 남긴 「백운동유서기」에 언급된 내용을 미루어 보아 백운동 조영에 담긴 사상 및 경관관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백운동원림은 소쇄원, 명옥헌, 다산초당, 일지암 등과 더불어 몇 남지 않은 호남 전통 원림의 원형을 간직한 매우 소중한 유적이란 의견(정민, 2011)에 동의한다. 백운동원림에 대한 연구는 김수진 등(2006)에 의해 입지와 공간 구성을 중심으로 한

기초 연구가 유일하며 이마저도 복원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로 백운동 승경을 면밀히 검토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복원 이후의 공간구성과 승경의 연출을 통한 백운동원림의 진면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여러 시문과 옛 그림 속에 나타난 백운동8영 및 12승경 등 원림의 내경(內景)과 외경(外境)의 고찰을 통해 백운동원림의 입지성을 고찰하는 한편 원림내 수경관과 식재경관 등 전통정원으로서의 원형질적 요소를 검토함으로써 복원의 진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료 도출을 목표로 시도되었다.

## II.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백운동원림은 전라남도 영암 월출산의 남쪽, 천불동 기슭인 현재 성전면 월하리 안운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1812년 음력 9월 초의선사와 정다산, 제자 윤종심이 월출산을 주유하고 제작한 「백운동시화첩」의 주경관이며 배경이 된 곳이다. 월출산은 소백산계(小白山系)의 무등산 줄기에 속하며, 해발 809m로 높지는 않지만 산체(山體)가 매우 크고 수려하다. 백운동원림이 위치한 안운 마을은 면소재지에서 북쪽으로 6km 지점에서 위치한 아담한 산간마을로 안정동(安靜洞)과 백운동(白雲洞)을 아울러 안운(安雲)이라 부른다. 백운동 원림의 서쪽으로 선종불교의 유적지로 잘 알려진 무위사가 있고, 북으로 소금강(小金剛)이라 불리는 월출산이 병풍처럼 뻗어 있고, 월남(동)·죽전(서)·월하(북)마을이 에워싸아 마치 따뜻한 명당지리에 앉은 형국이다(그림 1).



그림 1. 백운동원림의 위치



그림 2. 백운동각서



그림 3. 백운유거 현판

연구방법은 이시헌(李時憲, 1803~1860)이 이담로의 백운동유서기 등 백운동 관련 제현의 시문(표 1 참조)을 모아 엮은 『백운세수첩(白雲世守帖, 이가원, 1991)』과 정다산(丁茶山)의 白雲洞12勝事(이후 白雲洞12勝景으로 지칭함)를 통한 문헌조사와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3차례의 현지답사를 통해 주변 경물과 곡수거에 대한 고찰과 평판 및 고저측량을 병행하여 곡수거 크기와 정원배치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1812년 초의선사에 의해 제작된 백운첩에 수록된 백운동도(白雲洞圖)에 나타난 외경(外境)과 원내경(園內景)의 복원 상태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현지답사를 통해 실측한 원림내 수공간의 공간구성 및 규모 그리고 형태 등을 문헌 자료의 진술 등과 비교·고찰함으로써 원림내 곡수거의 특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안운마을과 백운동의 유래

마을의 옛 지명인 안정리와 백운동이 처음 나온 것은 1789년 「호구총수(戶口總數)」의 기록으로 이 당시에는 안주면의 관할을 받았다. 그 후 1914년 일제강점기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안정리와 백운동을 병합하여 현재 마을명인 안운으로 고치면서 월하리에 속하고 성전면 관할을 받게 된다. 백운동원림의 실질적인 경역은 마을 이효천(李孝天)의 집으로 가는 계곡 좌

측에 있는 작은 바위에 행서(行書)로 ‘백운동(白雲洞)’이라 새겨진 각자(41cm×145cm) 바위로 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그림 2). 이곳은 무위사에 소속된 암자인 백운암(白雲洞)의 옛터로 이 마을 입향조인 원주이씨 이담로(李聃老, 1627~?)가 터를 잡고 살 때에 호(號)를 ‘백운동은(白雲洞隱)’이라 하였으며, 바위에 새긴 글씨도 직접 새겼다고 한다(김수진 등, 2006). 또한 이효천의 집 마루에 제작연도는 확실치 않으나 은행나무 널판에 새긴 글씨(82cm×26cm)로 백운유거(白雲幽居)라는 현판이 있다(그림 3).

백운동명에 관한 사료로는 이담로가 지은 「백운동명설(白雲洞名說)」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백운동은 월출산 옛 백운사의 아래편 기슭에 있다. 앞에 석대가 있는데, 올라가서 보면 뒤편으로 층암이 옥처럼 서 있다. 松竹이 길을 덮고, 맑은 시내가 어리비친다. 이 물을 끌어 구곡으로 만들어 섬돌을 따라 물소리가 울린다.”

“洞在月出古白雲寺之下麓，前有石臺，登臨，後有層崑玉立。松竹迷途，清流映帶，引以爲九曲，循除而鳴。澗畔石上，”

이 글에 의하면 냇가 바위 위에 백운동이란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백운사의 아래 위치한 장소성으로 인해 백운동이란 이름을 얻었다고 했다. 또 다른 사료로는 이담로의 6대손 이시헌(李時憲, 1803~1860)이 직접 백운동14경을 총괄해서 노래한 「총영(揔詠)」 5구에 “峒號華陽持贈物. 골짜은 화양 은자

표 1. 분석 문헌 자료

문집 및 시문명	원저자	번역 및 해설	비고
白雲洞幽棲記	李聃老(1627~?)	이가원(1991), 白雲世手帖	適窩畸叟
白雲洞名設			
白雲洞草堂八詠詩	申命圭(1618~1688)	이가원(1991), 白雲世手帖	圃陰集, 海石遺稿
白雲洞八詠詩	林 永(1649~1696)		
白雲洞八詠	金昌翁(1653~1722)		
白雲洞 詩篇	金昌緝(1648~1722)	이가원(1991), 白雲世手帖	頭陀草, 1722년 백운동원림 방문
白雲洞十詠	宋翼輝(1689~?)		
南遊錄, 南行集	李夏坤(1677~1724)	이가원(1991), 白雲世手帖	1812년 백운동원림 방문
白雲洞十二勝事(白雲帖 <sup>1)</sup> )	丁若鏞(1762~1836)		

지냈던 물건으로 이름삼고”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과 관련된 고사에서 백운동이라 명명한 유래에 대해 유추할 수 있는데, 허균(許筠, 1569~1618)의 「한정록(閑情錄)」에 나타난 고사에 의하면 양(梁)나라 도홍경(陶弘景)이 화양(華陽)에 숨어 살며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는데, 고조(高祖)가 그를 만나러 갔다가 대채 산중에 무엇이 있어서 나올 생각을 앓느냐고 묻자, 그가 대답했다는 다음과 같은 시에서 따왔다.

“산 속에 무엇이 있나 하시니, 고개 위엔 흰 구름 많기도 하죠. 다만 혼자서 기뻐 즐길 뿐, 임금께 드리진 못한답니다.”  
 “山中何所有，嶺上多白雲。但可自怡悅，不堪掛贈君。”

골짜기의 이름이 백운동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백운동유서기’에는 백운동명설과 같이 이곳에 별서를 지은 뜻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내가 이곳을 택한 이유는 한갓 그윽한 정취 때문만이 아니다... 한적하게 살며 심성을 함양하고 문흑(文黓)으로 낙(樂)을 삼는 자 또한 이로 인해 도움이 되는 바 있을 것이다... 새장 속에 달을 보고 우는 학이 있고 시렁 위엔 바람에 우는 거문고가 있다. 이것이 바로 백운동의 생활이다.” 백운사의 아래에 있어 백운동이란 이름을 얻었다고 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진현> 조 ‘불우(佛宇)’ 조에 백운사와 수암사(秀巖寺)가 월출산에 있다고 했으니, 이 절을 말한 것이다. 실제 백운동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 백운사의 절터가 남아 있다.”

이로써 백운사(白雲寺) 절터리는 장소성과 양나라 도홍경(陶弘景)의 화양(華陽) 은거고사는 백운동원림 경관의미의 근원임이 잘 드러나고 있다.

2. 백운동8영과 12승경

백운동8영에 대한 유래는 백운동원림의 작정인인 이담로의 「백운동유서기(白雲洞幽棲記)」에서 확인된다.

“월출산 남쪽, 천불동 기슭에 골짜기가 있다. 땅이 후미지고 그윽하며, 물은 맑고도 알다. 층암이 절벽처럼 서서 우뚝하고, 흰 구름이 골짜기를 배워 영롱하니, 또한 아름다운 곳이다. 구양수의 滁州와 유종원의 愚溪를 이곳에서 볼 수 있다. 내가 이곳에 자리 잡은 것은 그윽한 운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물물을 끌어서 술잔을 띄움은 왕희지의 蘭亭을 본받고자 함이요, —중략— 이에 물에는 연꽃을 심어 천연스런 자태를 아끼고, 동산에는 매화로 해맑은 풍격을 숭상하며, 구화는 절개를 취해 서리에도 끄떡 않는 자태를 돌아본다. 소나무는 절조를 취해 뒤늦게 시드는 자태와 문채남을 시험하였다. 물가에는 대나무가 있어 마음 맞음을 의탁하고, 뜰에는 난초를 심는다. 조롱에는 학을 두어 달빛에 울고, 시렁에

는 거문고가 있어 바람에 운다. 이것이 백운동의 대강이다. 마침내 기문으로 삼는다.”

『백운세수첩』에는 이담로의 백운동유서기와 백운동명설에 이어 적와기수(適窩畸叟) 신명규(申命圭, 1618~1688)가 쓴 「백운동초당팔영(白雲洞草堂八詠)」과 임영(林泳, 1649~696)과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의 「백운동팔영」이 각각 실려 있다. 그리고 송익휘(宋翼輝)의 「백운동십영(白雲洞十詠)」과 이시현의 발문도 수록되어 있다. 송익휘(宋翼輝)는 유배기간 중 백운동영산홍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그날의 회포를 「백운동십수(白雲洞十首)」로 노래하였다(정민, 2011). 이때 등장하는 8영의 경물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서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모두 송(松)·죽(竹)·국(菊)·란(蘭)·매(梅)·연(蓮)·금(琴)·학(鶴) 등 8가지를 노래한 것으로, 「백운동유서기(白雲洞幽棲記)」표제어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8개 경관대상이 백운동원림의 확고부동한 원림 경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금과 학은 식물류뿐만 아니라 동물 그리고 금기서화(琴棋書畫)의 하나인 ‘거문고타기’가 선비들의 풍류문화로 정착되어 있음을 시사해 준다.

당시의 쟁쟁한 문인들이 앞 다퉈 백운동의 승경을 노래한 데서 알 수 있듯, 당시에 백운동원림은 경향간(京鄕間)에 이름이 높았다. 이하곤(李夏坤, 1677~1724)은 호남지방을 여행한 기행문 「남유록(南遊錄)」에서 이곳의 풍광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15리를 가서 월남촌(月南村)에 이르렀다. 월출산 남쪽에 있기 때문에 월남이라고 한다. 옛날에 월남사가 있었는데 자못 경치가 훌륭했다. 지금은 폐사가 되어 일반 백성이 산다. 또 서쪽으로 5리쯤 가면 백운동이다. 승문원(承文院) 정자(正字) 이언렬의 별업이다. 골짜기가 그윽하고 깊다. 나무는 동백이 많은데, 마침 꽃이 피어 화려하였다. 마당 가운데에는 산골 물을 끌어 곡수(曲水)를 만들었다. 대개 지난 날 술잔을 띄워 놀던 장소다. 언렬이 죽고 나서는 또한 폐하여진 지 오래다. 남쪽에는 작은 동산이 솟아 있고, 장송을 열 지어 심었다. 그 아래는 단을 만들어, 앉아서 구정봉(九井峰)의 여러 봉우리를 볼 수가 있으니 더욱 기이하다.”

이 기록으로 볼 때 이하곤이 백운동원림을 찾았을 때 마당의 유상곡수는 이미 매몰되었거나 유상곡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골짜기에 동백이 군락을 이루어 자라고 있었음을 알

표 2. 백운동8영

제영자	백운동8영의 제영 순위
申命圭(1618~1688)	松·梅·竹·蘭·蓮·菊·琴·鶴
林 泳(1649~1696)	松·梅·竹·蘭·菊·蓮·琴·鶴
金昌翕(1653~1722)	松·竹·菊·蘭·梅·蓮·琴·鶴

수 있다(정민, 2011). 남쪽의 작은 동산에는 소나무를 심고, 그 아래 단(壇)을 만들어 시점장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외경인 월출산 구정봉까지 조망 축을 확보하였다. 이후 백운동이 다시금 주목 받게 되는 것은 다산 정약용에 의해서다. 다산은 1812년 9월에 제자인 초의(草衣)와 윤동(尹洞)을 데리고 월출산에 원족(遠足)을 와 백운동에서 하루를 묵었다. 유람 후 다산은 백운동의 승경을 잊지 못해 이곳의 12승경을 노래한 13수의 시를 짓고, 초의를 시켜 백운동도(白雲洞圖)를 그리게 하고 『백운첩(白雲帖)』으로 묶었다(노재현 등, 2008). 서시격의 시는 「백운동 이씨 산거(山居)에 부쳐 제하다(寄題白雲洞李氏山居)」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초의는 1839년 가을에 백운동을 다시 찾았다. 그는 그곳에 심어져 있는 백학령(白鶴翎)이란 고급 품종의 국화를 보고 시를 지었고, 이 국화 한 그루를 얻어가며 한 수 더 지었다. 이런 정황 등을 볼 때, 당시 백운동원림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화이초(奇花異草)들도 재식되어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산이 꼽은 백운동12승경은 옥판봉(玉版峯)·산다경(山茶徑)·백매오(百梅塢)·취미선방(翠微禪房)·모란채(牡丹砌)·창하벽(蒼霞壁)·정유강(貞莸岡)·풍단(楓壇)·정선대(停仙臺)·홍옥폭(紅玉瀑)·유상곡수(流觴曲水)·운당원(筮簫園) 등으로 6개의 식물을 포함한 폭포, 정자 등을 노래하고 있다(표 3 참조).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운동원림에서 구정봉(711m)까지는 약 2.3km 거리에 있으며, 그 전면 약 1.6km 거리에 12승경의 하나인 옥판봉(670m)이 자리한다. 따라서 이 경관권역까지가 백운동원림의 외경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백운동의 원림경역을 재구성하면 백운동의 제1경은 옥판봉으로 이름하여 ‘옥판봉의 상쾌한 기운[玉版爽氣]’이다. 산다경은 동백나무 오솔길로 지금도 백운동 접근로 양편으로 동백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백매오는 집 둘레 바위 언덕에 심어둔 백여 그루의 홍매를 가리키는데 현재는 담장 옆과 화계에 식재된 백매를 볼 수 있다. 취미선방은 본채 아래쪽에 화계(花階) 위에 세운 세

칸의 초가집이다. 그리고 모란채는 모란을 심어둔 화단이고, 창하벽은 계곡을 건너 별서로 들어설 때 집 앞을 막고 선 푸른 절벽이다. 또, 정유강은 소나무를 열 지어 심은 집 남쪽의 작은 밭등으로 창하벽의 위편에 해당한다. 또한 풍단은 시냇가에 임한 양편에 단풍나무를 심어둔 평평한 땅으로 다산은 『아언각비(雅言覺非)』에서 단풍나무에 대해 설명하면서, “내가 강진에 귀양 살 적에 백운동 이씨 산장에 단풍나무 몇 그루가 있는 것을 보았다. 높고 커서 하늘을 찌를 듯하여 기동감으로 쓰기에 마침 맞았다. 주인에게 물어 보니, 여태 꽃이 피어 열매 맺는 것을 못 보았다고 하니 기이하다 할만하다.”고 적은 바 있다. 정선대는 정유강 옆에 세운 작은 정자의 이름이다. 현재 아름답지 세 그루 소나무 열 주춧돌 자리에 초정을 복원해 놓았다. 홍옥폭은 계곡을 건너기 전 힘차게 떨어지는 폭포로 지금은 건천이 되어 유량이 거의 없지만, 여름 철 비가 많이 내리면 장관을 이룬다. 풍단을 지나 내려온 물이 물가에 있던 죽정(竹亭) 앞을 세차게 치며 흘러 폭포가 된다. 유상곡수는 앞서 언급한 마당에 있는 유로(流路)이다. 운당원은 집 오른쪽의 무성한 대나무 밭을 가리키는데 이곳에 야생차가 군집을 이루며 자란다.

백운동8명이 주로 원림의 내경을 노래했다면 다산12경은 옥판봉 등 외경을 포함하여 차경이 조경의 주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다산이 노래한 12경 중 현재 ‘백매오’와 “정유강”은 실체가 다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100여 그루의 매화가 심겨진 백매오는 담장 복원공사로 인해 훼손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정유강의 경우 정선대 뒤편에 있는 3그루의 노송으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이 집의 주인이었던 다산의 제자 이시현도 「자이당집(自怡堂集)」에서 “의운곡잡영부득백운십사경(擬雲谷雜詠賦得白雲十四景)”이란 시문을 통해 백운동14경을 노래하였다. 그가 손꼽은 14경은 白雲洞 · 自怡堂 · 千佛峯 · 停仙臺 ·



그림 4. 백운동원림의 경관 영역권

표 3. 백운첩에 나타난 12승경

구분	茶山の 백운동12勝事	이시현의 백운동14景	관련 식물
1. 玉版峯	월출산 구정봉 서남쪽 봉우리의 상쾌한 기운	千佛峯	
2. 山茶徑	원림 진입부의 동백나무 오솔길	山茶徑	동백나무
3. 百梅塢	집 둘레에 바위언덕에 심은 100그루의 홍매	百梅園	홍매
4. 翠微禪房	본채 하단 화계 위에 세운 세 칸의 초가집	自怡堂	
5. 牡丹砌	모란을 심은 화단	牡丹圃	모란
6. 蒼霞壁	입구 우측 집 앞을 막고 선 푸른 절벽	蒼霞壁	
7. 貞莸岡	소나무를 열식한 남쪽의 작은 밭등	萬松岡	소나무
8. 流觴曲水	상지와 하지를 연결한 수 공간	曲水	연꽃
9. 楓壇	단풍나무를 심은 시냇가의 편편한 땅	楓壇	단풍나무
10. 停仙臺	정유강 옆에 세운 작은 정자	停仙臺	
11. 紅玉瀑	계곡을 건너기전 힘차게 떨어지는 폭포	紅玉潭	
12. 筮簫園	집 우측에 무성한 대나무 숲	筮簫谷	왕대
		曠紅砌	영산홍
		白雲洞	

百梅園·萬松岡·箕簫谷·山茶徑·牧丹圃·映紅砌·蒼霞壁·紅玉潭·楓壇·曲水 등으로 다산의 12승경과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취미선방은 자이당(自怡堂)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영산홍을 심은 화계를 하나 더 뽑았다(표 3 참조).

백운동12승경은 그림 5의 초의의 백운동도에서 도해한 바와 같이 외경의 경계가 되는 옥관봉을 원경으로 산다경, 백매오, 홍옥폭, 풍단 등의 전이공간에 설정하고, 내경의 초당과 정자를 비롯하여 국화, 모란, 영산홍, 왕대, 소나무 그리고 곡수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심적이며 다층적 경관구조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백운동원림에서 찾은 12승경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5. 백운동도에 표현된 백운동12승경의 구성



그림 6. 백운동 원림의 현재와 12승경(2011. 03)

### 3. 백운동원림 곡수거의 특질

백운동원림에 대한 여러 시문의 해석과 공간적 의미 해석이 일치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와 관련된 여러 편의 시문과 현장의 유구를 볼 때 방지(方池)에 군자의 꽃인 연을 심어 심신을 수양하였고, 난정수계(蘭亭修契: 그림 7 참조)를 통해 백운동원림이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풍류 거점으로 활용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전체 곡수는 월출산 층암을 옆으로 눕혀 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두 개의 방지(方池)가 곡수거로 연결되고 있다. 상지(上池)는 장방형(3.5m×4.5m)의 중심에 괴석이 놓여 있으며, 하지(下池) 또한 장방형(3.6m×5.7m)으로 실측되었다. 백운첩에 실린 다산도(茶山圖)와 백운동도를 보면 양자 공히 아래위로 연못 두 개가 있다. 담양 소쇄원 또한 냇물을 대통으로 이어 두 개의 인공 연못을 파 놓았다. 담양 명옥헌(鳴玉軒)과 대둔사 일지암 그리고 다산 초당도에 묘사된 방지 역시 어김없이 상하 2개로 구성되어 있어 상하 두 개의 연못 파기는 호남 원림의 상대적 특징으로 보인다. 못에는 연꽃과 물고기를 길러 마음을 닦고 눈을 즐겁게 했다. 뜻하지 않은 화재에 대한 대비의 구실은 부차적이다(<http://blog.joinsmsn.com/media>).

백운동원림의 서측을 흐르는 계곡수를 수로를 통해 원내로 이입하여 섬돌 아래로 돌려 마당의 상·하지를 돌아 다시 방향을 꺾어 시내로 흘러나가게 만든 특유한 곡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곡수의 형태는 계곡 물을 끌어서 담장 밑으로 들이고, 섬



그림 7. 문징명(文徵明)의 난정수계도(蘭亭修契圖, 1542)에 나타난 유상곡수거



그림 8. 곡수거의 입출수구와 굴절양상



표 4. 교목식재 현황표

성상	수목명	학명	규격	단위	계	비고
상록 교목	소나무	<i>Pinus densiflora</i>	R 30	주	3	
			R 35	“	1	
			R 50	“	1	
	동백나무	<i>Camellia japonica</i>	R 20	“	4	
	팽나무	<i>Celtis sinensis</i>	R 50	“	4	
낙엽 교목	배롱나무	<i>Lagerstroemia indica</i>	R 15	“	1	
			R 20	“	2	
			R 25	“	1	
			R 30	“	2	
	왕벚나무	<i>Prunus yedoensis</i>	R 45	“	1	
			R 50	“	1	
	은행나무	<i>Ginkgo biloba</i>	R 50	“	1	
	감나무	<i>Diospyros kaki</i>	R 30	“	1	
			R 50	“	1	
	대추나무	<i>Ziziphus jujuba</i>	R 30	“	2	
			R 50	“	1	
	팽나무	<i>Morus bombycis</i>	R 50	“	2	
	단풍나무	<i>Acer palmatum</i>	R 20	“	1	
			R 25	“	3	
			R 30	“	1	
			R 35	“	1	
			R 40	“	1	
R 45			“	1		
R 50			“	3		
R 60			“	3		
R 100	“	2				
살구나무	<i>Prunus armeniaca</i>	R 30	“	1		
느티나무	<i>Sawleaf Zelkova</i>	R 30	“	1		
교목계				“	47	

했을 당시인 1722년 마당의 유상곡수가 이미 폐허였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담로의 곡수로 조영 이후 최소 이하곤의 방문 시기인 1722년 이전 어느 시기까지 충돌하고 있는 ‘못에는 연꽃을 길렀다’는 기록과 ‘유상곡수의 풍류행위를 즐겼다’는 설명 상호 간에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더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17·18세기의 조선은 그동안의 사상에 대한 변화의 싹이 트고 본격적인 실학사상이 등장한 시기임에 비추어 직각 형태의 곡수유거가 갖는 실용적 측면에서의 기능성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본다.

### IV. 결론

본 연구는 백운동원림에 관한 여러 시문과 옛 그림 속에 나타난 백운동8영과 12승경 등 백운동원림의 내경과 외경의 고찰

을 통해 조망경관과 식재경관 등 백운동원림의 전통조경적 특질을 강화시킴으로써 복원의 진정성 제고할 수 있는 자료 도출을 목표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백운동원림의 장소성은 백운사지(白雲寺址) 및 梁나라 도홍경(陶弘景)이 화양(華陽) 은거고사 그리고 원림입구의 白雲洞 각자에서 근원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 백운동8영은 백운동유서기(白雲洞幽棲記)의 표제어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초기 원림의 확고부동한 경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백운동8영인 松·梅·竹·蘭·蓮·菊 그리고 영산홍은 관상적 측면은 물론 의미경관요소로 지속적으로 원내 경을 구성하였던 조경식물로 보인다. 더불어 선비의 고고함과 아취(雅趣)를 강화시키기 위해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금(琴)과 학(鶴)의 경물 요소 또한 정원 요소로 매우 비중 있게 다뤄왔음을 알 수 있다.

3. 백운동12승경으로 볼 때, 약 1.6km 권역의 원경인 옥판봉을 외경으로, 산다경, 백매오, 홍옥폭, 풍단 등은 전이공간으로 설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초당과 정자를 비롯하여 국화, 모란, 영산홍, 왕대, 소나무 그리고 연못 등을 내경의 경관요소로 구성함으로써 백운동원림은 별서를 중심으로 구심적이며 다층적 경관구조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두 개의 방지(方池)가 곡수거로 연결되는데, 상지는 크기 3.5m×4.5m 크기이며, 하지 또한 장방형으로 크기 3.6m×5.7m로 실측되었고, 서측을 흐르는 계곡수를 끌어 원내로 유도한 유로(流路)는 90°의 직각 형태를 보이며, 원내에서 총 5번의 굴절(屈折)을 이루는 곡수로 구성되어 있다.

5. 현재 유구가 남아있는 국내 대부분의 곡수거(曲水渠) 형태는 유선형인데 반하여 백운동의 곡수거는 반듯한 직선으로, 내원(內園)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형태와 규모를 갖는 이채로운 발상과 디자인으로 주목된다.

백운동원림의 진정한 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옥판봉을 비롯한 12승경 중 외경의 경물요소에 대한 점진적인 경관연출을 도모하기 위한 조망 관리적 배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집경(集景)요소로 시문 등에 등장하는 조경식물들의 품격을 최대한 고양할 수 있는 적절한 식재위치 및 식재패턴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곡수지 주변 수경식재(水景植栽)에 대한 고심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 1) “백운첩”은 1812년 음력 9월,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다산이 초의와 만나 월출산을 함께 구경하고 내려오면서 산 아래 백운동 이덕휘의 집에서 하룻밤 머물며 만든 20쪽짜리 시화첩 형식의 작품으로 ‘백운동도’와 ‘다산초당도’가 수록되어 있다.

주 2) 현재 구전되는 개촌씨족은 延安李氏로 靑延大監이 조선 초기 연산군대(1495~1506)에 한양에서 입향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관련된 자료가 없는데다 현재 자손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 자세한 입향 사실은 알 수가 없다. 그 후 原州李氏 李聘老(1627~1701)가 1600년대에 본문 금당리 세거지에서 백운동으로 이거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현재 17세손에 이름). 이후 원주이씨 대부분이 월남리 월남



으로 이거하였으며, 김해김씨(현재 9세손) 平山申氏(현재 9세손) 계주고씨, 엄길전씨 등이 처음 이거해 마을을 이루었다.

- 주 3) 우리나라 곡수거 유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A.D. 5C 중엽에 조성된 평양 안학궁 후원의 자연형 곡수거를 들 수 있으며, 현존하는 것으로는 A.D. 9C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포석정의 인공형 곡수거를 들 수 있다. 상류계층에 의해 경영된 곡수거 관련 최고의 문헌으로는 A.D. 9C 말 최치원에 의해 조성된 정읍 태인의 유상대 곡수거를 들 수 있다. 고려 때에는 곡연이 풍류문화의 대표적 사례가 되는데, 곡연 관련 정원시설인 곡수거는 궁궐의 후원이나 이궁, 루정과 연계된 자연 계류변, 주거공간의 사랑 뜰 등에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다. 특히, 도수로의 이용은 일정 거리가 떨어진 계류의 맑은 물을 끌어들이어 석재로 가공된 곡수거 주두에 주수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계류에 인접시켜 암반 위에 최소한의 수폭 조정을 거쳐 수로를 유도시키는 수경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고려시대 기흥수의 퇴식재 곡수(연의지) 연회는 매년 3월 상사절과 9월 중앙절에 당대 명사들을 초청하여 유상곡수 연회를 베풀었는데, 기이한 괴석으로 곡수로를 만들고 연못을 만들어 채색오리를 곁들이는 풍류문화가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있기도 하다. 조선시대 곡수연 문화의 대표적 사례로는 창덕궁 옥류천변 소요암반에 타원형 형태로 조성한 인공 곡수로, 담양 소쇄원의 자연 암반 오곡계류에 물 웅덩이로 조성한 석와(石澗) 곡수로, 윤선도가 경영한 해남 보길도의 곡수당(정자 아래 10여보 떨어진 거리에 소규모의 곡수로 조성), 창경궁 정일재 뜰에 왕희지의 난정고사를 빗대어 도입한 곡수연 유배거 등을 들 수 있다.

## 인용문헌

1. 강진군(2007). 정다산유적 복원을 위한 학술연구보고서. p.119.
2. 강진군(1990). 강진군 마을사(성진면 편). pp.123-126.
3. 강진군(2006). 무위사: 월남사지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4. 김수진, 정해준, 심우경(2006).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에 관한 기초 연구: 입지와 공간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4(4): 51-61.
5. 노재현, 신상섭, 박을진(2008). 茶山圃에 표현된 茶山草堂의 原型景觀 探索.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6(2): 31-41.
6. 노재현, 신상섭(2010). 중국과 한국의 流觴曲水 流盃渠 특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 휴양 및 경관계획연구소 논문집. 4(2): 1-14.
7. 정민(2011). 새로 쓰는 조선의 차 문화. 과주: 김영사. pp.559-576.
8. 이시현. 자이당집(自怡堂集) 필사본 3책.
9. 한국고전번역원(1997). 이하곤 「두타초」 한국문집총간 191책.
10. 김원우 엮음(2010). 숨어사는 즐거움(허균의 한정록). 서울: 솔출판사.
11. 이종목(2006). 조선의 문화공간(1-4). 서울: 휴머니스트.
12. 이효우(2001). 白雲世守帖. 서울: 연담문고.
13. 정재훈(2010). 한국전통조경. 과주: 도서출판 조경. pp.455-517.
14. 허균(2002). 한국의 정원 선비가 거닐던 세계. 서울: 다른세상.
15. 김진수, 김윤상(2010). 유가적 수양론으로 본 호남지방 별서형 정자 입자와 배치의 의미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4): 49-63.
16. [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bytylp& folder=25&dist\\_id=11547575](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bytylp& folder=25&dist_id=11547575).
17. <http://jungmin.hanyang.ac.kr>
18. <http://blog.joinsmsn.com/media>

원고접수: 2011년 5월 9일

최종수정본 접수: 2011년 6월 3일

2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